

南北 문제 해결위해 남한 제스처가 중요

민추본, 14일 '남북관계 전망'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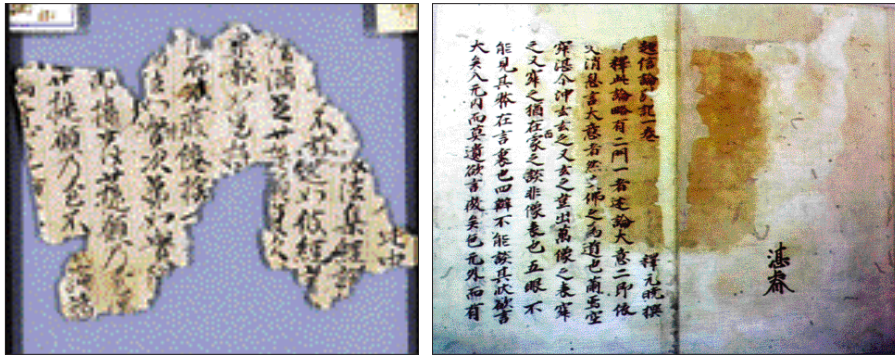
“북한이 10월 당대회를 앞두고 신년사에서 최고위급회담까지 언급했을 정도로 내부 자원의 총동원과 남북·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지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대승기신론’ 주석서 最古本 발견

당위안·김천학 교수 12일 동국대서 발표

〈소〉 돈황본과 비슷한 연대 〈별기〉 유통본보다 300년 앞서 한국불교 영향력 증명자료 “서역에 신라 문화 전파됐다”



당위안 교수가 공개한 <대승기신론소> 투르판본(왼쪽)과 김천학 교수가 밝힌 <대승기신론별기> 당에 스님 필사본

동아시아 대승사상이자 한국의 고승인 원효 스님의 대표 저서 <대승기신론소>와 <대승기신론별기>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 공개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1월 12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중국 상해 사범대 당위안(定源) 교수 및 김천학 HK교수 초청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본을 공개했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은 인도의 마명(馬鳴:100~?) 스님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승불교의 개론서로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의 주요 종파에 큰 영향을 끼친 전적이다.

<대승기신론소>는 이 <대승기신론>에 대한 원효 스님의 주석서로, 1000여 권이 넘는 대승기신론 주석서 중 으뜸으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따로 <해동소>(海東疏)로 불릴 정도다.

이와 함께 <대승기신론소별기>는 <대승기신론소>의 초고(草稿)본으로 원효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저술로 알려져 있다.

이와 김천학 동국대 HK교수는 기존 일본의 현재 유통본보다 300년 이상 앞선 <대승기신론별기> 최고본을 공개했다. 동

<대승기신론소> 투르판본은 필적과 종이의 질 등 연대가 밝혀진 비슷한 사본과 비교한 결과 8~10세기 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 최고본으로 알려진 돈황본과 비슷한 연대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당위안 교수는 이번 공개에 앞서 2010년 영국 런던 대영도서관에서 20세기 초 영국의 오펔 스타인(1862~1943)이 가져온 돈황 문서들을 연구해 총 15행의 단간임을 밝힌바 있다. 당위안 교수는 “사본간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일정부분 다른 부분도 발견됐다”며 향후 과제를 밝혔다.

김용태 동국대 HK교수는 “돈황보다 서쪽인 투르판 지역에서 원효 스님의 전적이 있었다는 것이 또다른 의미를 지닌다”며 “보통 우리는 아시아 교류에 있어 페르시아-스키타이 문명이 한국에 영향을 준 것만 생각하지만 신라의 문화도 서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김천학 동국대 HK교수는 기존 일본의 현재 유통본보다 300년 이상 앞선 <대승기신론별기> 최고본을 공개했다. 동

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은 일본 가나자와공과대학교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김천학 동국대 HK교수는 일본 가나자와공과대학교 동교(道津綾乃) 주임학예원, 도쿄(東洋)대학 중앙연구소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 객원연구원과 가나자와공과대학교 가마쿠라시대의 <대승기신론별기> 사본을 발견했다.

김천학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별기는 1313년 경 일본 당에 스님이 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수대장경> 본의 저본인 일본 간본의 1659년보다 300년 앞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욱 동국대 HK연구단장(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은 “불교문화연구원은 원효 탄신 1400주년인 2017년까지 원효 전적의 정비와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번 전적 발견은 원효 스님이 동아시아 최고 지성인으로 당시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정본역주를 통해 원효 전기를 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이사회, 총장 후보 23일 재논의

1월 15일 5시간 동안 격론, 논문표절 의혹 검증 뒤

동국대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 보광 스님의 논문표절 의혹을 검증한 뒤 다시 총장 선임 회의를 열기로 했다.

1월 15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열린 제288차 이사회에서 총장선출을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뒤 23일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5시간 동안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이사회 회의 공개 여부와 채택 안건 순서에서부터 이사회간의 이견이 발생했다.

이와 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인사안,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은석초등학교

교직 개정안, 교육용 기본재산 수증 승인안,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총장선임안, 기타 등 7개 안건을 놓고 논의했다.

다수의 이사들은 총장선임안을 먼저 다루길 것을 요청했지만 이사장 정련 스님과 일부 이사들은 계약직 교직원들의 생계문제가 달린 교원인사안과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오전 회의 동안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회 후 오후 회의에서도 안건 상정을 두고 언쟁만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총장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성타 스님은 “보광 스님의 표절은 총장업무 수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다. 오늘 총장을 선출하고 나중에 검증하자”는 안을 냈지만 다시 언쟁이 높아졌다.

이사회 회의장에 배석한 박정국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 위원장(학술부총장)은 “동국대살리기 비상대책위와 개인 명의로 표절의혹 논문 30편 24건이 접수됐다”며 “논문진실성검증심사위원회가 20일 본회의가 열리며 본조사가 시작되면 본인이 인정한 논문 1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내에 판정할 수 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가 걸린다”고 밝혔다.

이와 이사회는 논문진실성검증심사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23일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총장 선임의 건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전통을 문화상품에 담아내다

문화사업단, 제7회 공모전 대상에 장태선, 김태은

14일 시상식... 순회 전시회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이 마련한 제7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에 장태선의 ‘이끌림’ (전문가 부문)과 김태은의 ‘부처님과의 차담’ (학생 부문)이 선정되고 1월 14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템플스테이와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템플스테이·사찰음식·불교문화콘텐츠(본디나 전문분야)를 활용한 창의적인 문화상품과 기념품 630점이 접수됐다.

일반(전문가)부문 대상을 수상한 장태선의 ‘이끌림’은 불교의 만(卍)자를 형상화하여 불교의 정신을 반영한 다용도 탁자로,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학생부문 대상을 차지한 김태은의 ‘부처님과의 차담’은 평소 대중에게 익숙한 불교의 경전을 모티브로 한 티백 패키지로써,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차담과 더불어 불교의 좋은 글귀를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된 아이디어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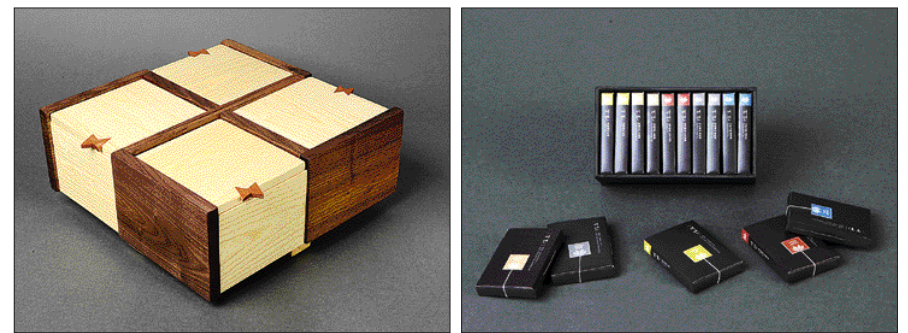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박진아·민병훈의 ‘불교 경전합’이, 서울시장상은 박지숙의 ‘전통놀이세트’가 수상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은 김문정의 ‘세상을 보는 목탁 돋보기’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일부 작품은 사업단의 전통문화상품 전문브랜드 ‘본디나 (VONDINA)’의 문화상품으로 새롭게 개발될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1월 12일~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터(1월 25일~2월 7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2월 9일~28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수상작 전시를 진행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은 “전통의 가치를 일상으로, 디자인을 삶의 일부로 만드는 이번 공모전 전시를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 것을 되살리고 불교의 정서와 문화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7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장태선의 이끌림(일반부, 사진 왼쪽)과 김태은의 부처님과의 차담(학생부, 사진 오른쪽)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결 나설 것”

자승 스님 등 종교 지도자들 호소문 발표

“아직도 높은 굴뚝에서 엄동설한 칼바람을 온 몸으로 견디며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따뜻한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교 등 한국 7대 종교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의 대표자들은 1월 6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7대 종교 대표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최근 다시 시작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문제는 노사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간의 최소한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계는 이를 방관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쌍용차 동차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서 “따라서 회사는 해고노동자들의 복직문제에 관심을 갖고 원용회복의 전통에 따라 노사가 한자리에 모여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대 종교 지도자들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해 종교가 노력할 것을 밝혔다. 지도자들은 “한국의 종교계를 대표하여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중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부디 쌍용차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그들이 원하는 공장에서 맘 풀리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사정인간의 최소한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계는 이를 방관할 수가 없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대강백이신 지안 큰스님과 함께 대승경전을 연찬할 스님을 모집합니다.

(서울불학승가대학원 학인 모집 공고)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대강백이신 지안 큰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을 모시고 대승경전을 감독하며 연찬하는 제7기 서울불학승가대학원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매주 2회, 총 2년간 진행되는 본 교육과정은 구축계를 받은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대승경전 4권을 전통강의법에 입각하여 자상하게 해석해줌으로써 대승불교의 진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주지 등 소임을 살거나 포교에 전념하시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모집대상		• 승려: 총 60명 내외(조계종 승려 및 타종단 승려 약간명)	• 재가자: 총 20명 내외(※ 재가불자의 정량도 가능합니다)	
모집방법		서류전형(심사 유 개별문의)		
교육시간 및 장소		• 학제: 2년 4학기 학기당 30회(15주) 수업 • 수업시간: 매주 화, 수요일 오후 6시 ~ 9시 • 교육장소: 법원사(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2층 불일문화회관		
수료자격		•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3급 승가교사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을 인정함.		
교육과정(2년제 4학기)				
학기	교과목	강의횟수	교수사	학사일정
1	금강경 오가해	30회	지안스님	2015. 3. 17 ~ 7. 15
2	대승기신론	30회	(대한불교 조계종 고시위원장)	2015. 8. 25 ~ 12. 9
3	법화경	30회		2016. 3 ~ 7
4	화엄경	30회		2016. 8 ~ 12

(※ 초파일 휴강 등 세부적인 학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울불학승가대학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부설)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주소 _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 전화 _ 02-730-6665 팩스 _ 02-732-4626 • 이메일 _ education@buddhism.or.kr
• 원서교부 _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